

**Chris Minns**  
Premier of New South Wales



**Sophie Cotsis**  
Minister for Industrial Relations  
Minister for Work Health and Safety

**Steve Kamper**  
Minister for Lands and Property  
Minister for Multiculturalism  
Minister for Sport  
Minister for Jobs and Tourism

## Media Release

### 곧 문을 열게되는 NSW 최초의 이민 근로자 센터(Migrant Workers Centre)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민즈 노동당 정부는 오늘 뉴 사우스 웨일즈 주 최초인 전담 Migrant Workers Centre 를 론칭하게 되는데, 이는 배경을 막론하고 주내의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될 이 센터를 세우겠다고 한 우리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민근로자들은 저임금 지급, 불안정한 근로조건 그리고 명백한 착취에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고, 이는 주 전역에 걸친 근로자의 권리 및 보호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Migrant Workers Centre 는 문화적 민감성을 지닌,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을 통해 연간 2,000 명의 위험에 처한 근로자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민즈 노동당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4 년 동안 650 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NSW 노조 (Unions NSW)는 NSW 에서 유일하게 취업 및 이민 법적조언을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이민자문 및 권리 센터 (Immigration Advice and Rights Centre, IARC)와의 비자지원 파트너십을 통해 3,000 명이 넘는 임시 이민근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미 무엇이 가능한 지를 입증한 바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및 맥켈 인스티튜트 (The McKell Institute) 등의 연구기관이 발표한 몇몇 보고서는 착취의 위험요인들이 부족한 영어, 호주 직장법규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부족한 지원 이용가능성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센터가 시드니 상업중심지구에 사무실을 두고 주전역의 지역사회에 활동기점을 갖고 있는 관계로, 이민근로자들의 거주지가 어디이던 그들이 어느나라에서 왔던, 수도권, 지방, 농촌지역 및 외딴 지역사회의 이민근로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게 되는데, 이는 노동당 정부가 모든 근로자들은 거주지나 배경을 막론하고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민즈 노동당정부가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주전역에 걸쳐 근로자 권리 강화를 위해 이미 취한 조치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 기업 과실치사의 불법화
- 인조석재 금지, 실리카 작업자 등기부 사용시작 및 터널작업 관련 실리카 공기시험 실시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확장
- 최초로 괴롭힘 및 성희롱 (Bullying and Sexual Harassment) 사법권을 제정하여 노사관계 위원회 (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로 하여금 강제집행이 가능한 명령을 발부하고 손해배상을 명할 권한을 갖게 함
- 세이프워크 (SafeWork)를 보다 많은 조사관을 가진 독립 규제기관으로 설정함
- SafeWork 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한 벌칙금 인상.

NSW Migrant Workers Centre 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할 때, 방문할

웹사이트: [https://www.migrantworkers.org.au/atp\\_nsw](https://www.migrantworkers.org.au/atp_nsw)

**크리스 민즈 뉴 사우스 웨일즈 주총리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NSW 의 모든 근로자들은 그들의 배경과 무관하게 안전하게 일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불받으며,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이 센터는 근로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무언가 잘 못 될 때 지원 받도록 도움을 주며, 취약한 근로자들이 너무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업계 내 착취 근절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착취를 당하면, 이는 모두를 위한 근로조건을 악화시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것이 NSW 전역에 걸친 기준과 공정성 그리고 적법한 일터를 지키는 일입니다.”

**직장보건 및 안전 장관인 소피 코찌스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근로자들은 존중받고, 공정한 임금을 지급 받으며, 하루 일을 마치고 직장에서 안전하게 귀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업계에서는 이민근로자들이 이용당할 처지에 놓여있고 실제 이용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 새로운 센터는 근로자들이 직장에서의 그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만일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자와 노조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NSW 정부는 더욱 안전한 직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SafeWork NSW 에 4 년에 걸쳐 1 억 2770 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추가로 20 명의 전담 심리사회 조사관들을 기용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조사관 확충이 포함됩니다.”

**스티브 캠퍼 다문화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이 우리 주를 오늘 날의 모습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민즈 노동당 정부는 NSW 최초의 전담 Migrant Workers Centre 를 론칭하려는 것인데, 공평한 기회는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저임금을 받고, 안전치 않은 환경에서 일하거나, 비자를 잃을 걱정 때문에 불평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된 이민근로자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이민근로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알고, 만일 착취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를 밝힐 지원을 받을 것을 보장하려 합니다.”

**Unions NSW 사무국장인 마크 모리씨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Unions NSW 는 오랫동안 이민근로자 옹호 및 지원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NSW Migrant Workers Centre 의 론칭은 업계전반에 걸친 이민근로자 착취를 와해시키기 위한 중요한 다음 단계의 조치입니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의 모든 근로자들은 그들의 배경이나 비자 상태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조건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미디어:**

**잭 솔로몬 | 주총리 | 0414 638 904**

**멜리사 반 데어 하크 | 코퍼스 장관 | 0482 771 351**

**일레인 키티스 | 캠퍼 장관 | 0419 184 392**